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말레이시아 / 2022년 5월)

I |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축산사료 수입 줄이기 위한 옥수수 산업 개발 프로젝트

- 말레이시아 농업·식품산업부(MAFI)는 옥수수 산업 개발 프로젝트(Grain Corn Industry Development Project)를 통해 2030년까지 가축 사료 수입을 30% 줄인다는 목표를 설정함
- 이에 옥수수 재배는 말레이시아 농업 종사자들에게 새로운 부의 원천으로 여겨지고 있음
- MAFI의 바드룰 히삼 모흐드 개발담당 사무차장에 따르면, 현재 말레이시아가 연간 약 4만 매트릭스톤의 옥수수(약 62억 링깃 상당)를 수입하고 있음
- 바드룰 히삼 사무차장은 곡물 수입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의 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말레이시아 정부의 곡물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지난 2015년 시작되었으며, 총 3단계의 과정을 거쳐 안정되는 데에 최소 15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됨
- 2015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의 파일럿 단계가 종료되며 이후 통합·확장 단계에 접어들게 됨
- 통합·확장 단계 기간 동안에는 재배 방법, 종자의 적절한 사용, 날씨, 품질관리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한 검토가 진행될 예정임

* 출처: 2022년 5월 13일, Daily Express

<https://www.dailyexpress.com.my/news/192328/move-to-reduce-livestock-feed-imports/>

□ 시사점

- 말레이시아 정부는 2030년까지 가축 사료 수입을 30% 줄인다는 목표를 달성을 위해서 농지를 필요로 하며, 또한 옥수수에 주요 상품산업 종사자들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모집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바, 팜유 산업 종사자들과 이들 농지의 10%를 옥수수 재배에 할당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2. JAKIM, 호주 할랄 도축 프로토콜 위반 의혹 조사 착수



- 말레이시아 이슬람 개발부(JAKIM)는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을 받은 호주 회사 'Thomas Foods International Lobethal'가 도축 절차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어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함
- 최근 말레이시아 무슬림 소비자 협회(PPIM)는 PEKEMAS(People's Community Organization) 등과 함께 해당 호주 회사가 말레이시아 할랄 승인을 획득했음에도 말레이시아에 공급하는 육류의 45%에 대해 이슬람법 상의 도축 절차를 따르지 않는 등 할랄 도축 프로토콜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데 대한 조치임
- PEKEPAS 측은 문제의 이 회사가 할랄 도축 표준 운영절차를 위반한 사실을 담은 영상 및 사진 증거와 증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짐
- 5월 10일 발표한 성명에서 PPIM 하키마 국장은 지난 3월 2일 해당 업체 도축장에 대한 JAKIM의 정기 감사가 실시되었으며 4월 28일에는 JAKIM과 주말레이시아 호주 대사관 간의 문제 논의가 있었고, 호주 주재 JAKIM Halal 사무관과 호주 농업·수자원·환경부(DAWE)가 이번 조사를 수행하고 있음을 밝힘
- 한편, 말레이시아 무슬림 소비자 협회(PPIM) 측은 할랄 여부가 의심스러운 수입 육류의 문제에 대해 더 많은 폭로가 이어질 것이라고 시사함
- 또한, 육류 카르텔의 활동이 광범위하게 번져 있으며, 고위 공무원들이 다수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다른 국가와 관련되어 국경을 초월한 육류 카르텔 운영의 가능성도 있다면서 육류 카르텔의 뿌리를 뽑기 위해 MACC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말레이시아 JAKIM 할랄 인증은 한국이슬람교중앙회의 KMF 인증을 포함해 46개국 85개의 할랄 인증과 교차 인정됨
- 말레이시아 내 유통되는 할랄 제품은 JAKIM 인증 마크 혹은 JAKIM과 교차 인정되는 할랄 인증의 마크만 부착할 수 있음
- JAKIM 인증 신청 대상자는 제조업체/생산자, 대리점/상인, 재포장업체, 도축장, 물류기업임

* 출처: Malay Mail, C4Center

<https://www.malaymail.com/news/malaysia/2022/05/10/jakim-to-investigate-alleged-breaches-of-halal-slaughtering-protocols-in-au/2058160>

<https://c4center.org/halal-status-disclosure-of-investigation-report/>

□ 시사점

- 말레이시아 이슬람 개발부 JAKIM은 할랄 인증이 부여된 후에도 인증 과정에 오류가 있었거나, 인증 이후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함
- 호주 도축장의 할랄 감독을 담당하는 할랄 인증 기관인 SICHMA(호주 할랄 육류 최고 이슬람 위원회) 또한 말레이시아 할랄 표준 절차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JAKIM이 인정한 할랄 인증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음

3. 말레이시아 미유(rice milk) 시장 향후 10년간 급부상 예상

- 말레이시아는 2022년부터 2032년까지 10년간 98%의 연평균 복합 성장률(CAGR)로 매출이 성장하면서 동남아시아 미유 시장에서 수익성 좋은 지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측됨
- ‘Future Market Insights’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완전채식 및 글루텐 프리와 같은 기능성 식단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유제품 대체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 수년 동안 미유 판매를 지속 증가시킬 것임
- 또한 예측기간 동안 전 세계 미유 시장은 6.2%의 CAGR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2년에는 6억 1,430만 달러 가치에 도달할 전망임



- 미유의 판매는 2017년~2021년 사이에 기록된 4.8%의 CAGR에 비해 예측기간 동안 6.2%의 CAGR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미유 판매는 2022년 미화 140억 달러로 평가되는 전 세계 식물성 유액(乳液) 시장의 총 수요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전망
- 미유에는 불포화 지방이 포함되어 있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며, 또한, 비타민 B6는 심장 건강에 유익하고, 그 외에도 다양한 감염과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고농축의 항산화제가 함유되어 있음
- 보고서에 따르면 유전자를 변형하지 않은 비GMO 식품 및 유기농 식품도 건강상의 이점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식품 제조업체들은 유기농 및 비GMO 제품을 포함하도록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음
- 미유 제조업체들은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제품을 빈번히 출시하고 있음

* 출처: New Straits Times

<https://www.nst.com.my/business/2022/05/794615/global-rice-milk-market-seen-reach-us6143m-year>

□ 시사점

- 미유는 우유와 매우 유사한 풍미, 맛, 질감을 가지며, 유제품을 대신하는 최고의 식물성 대체품 중 하나로 간주되므로 유당 불내증 및 견과류 불내증 문제를 가진 소비자들 사이에서 유제품 대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향후 몇 년 동안 미유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증가하고 판매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4. 두리안 공급 약 60% 감소…수출 주춤

- 악천후와 해충 등의 요인으로 말레이시아 두리안 공급량이 60% 가량 감소하면서, 그 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SAMKA(무상킹 지키기 연합)의 월슨 창 회장은 공급 문제로 인해 대부분의 두리안 농부들이 수출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음을 밝힘
- 월슨 창 회장에 따르면, 현재 두리안 시즌이 불안정하고 수확이 좋지 못하며 해충을 막을 다른 대안이 없음. 일부 두리안 나무들이 죽어가고 건강한 상태로 회복되는데는 1~2년이 소요될 수도 있다는 설명
- 두리안 가격의 상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을 받은 비료 가격과 운영 비용의 증가에 기인함
- 월슨 창 회장은 무상킹 두리안의 종전 판매가는 킬로그램 당 45링깃 선이었으나 올해는 55링깃을 넘을 것으로 예상함
- 농업식품산업부는 올해 생산량이 50% 감소하여 두리안 가격이 두 배 오를 것으로 예상함 : 블랙톤 품종의 가격은 킬로그램당 100링깃을 넘고 무상킹은 등급에 따라 킬로그램당 60~80링깃 사이에 가격이 책정될 것으로 보임
- SAMKA은 연방정부에 해충 문제 해결 방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고 있음
- 올해 두리안 시즌은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만 지속될 전망

* 출처: Free Malaysia Today

<https://www.freemalaysiatoday.com/category/nation/2022/05/16/durian-supply-down-by-nearly-60-says-group/>

□ 시사점

- 두리안 생산량의 감소로 시즌 단축, 수출 감소, 가격 인상 예상됨

5. 말레이시아에서 과라나(guarana)의 상업적 재배 불가

- 말레이시아 농업식품산업부(MAFI)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내에서는 과라나 (Paullinia cupana 또는 P.crysan, P.sorbilis)의 상업적 재배가 허용되지 않음

- 이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자국 고무 산업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 과라나(구아라나)의 수입을 금지한 것에 따른 것임
- ‘검역법 1976’과 ‘식물검역법 1981’에 의거하여 과라나 종자를 상업화하기 위하여 불법적으로 말레이시아로 반입하는 것은 금지되며, 이는 과라나종만 공격하는 것으로 보고 되는 콜레토티리쿰 과라니콜라와 같은 다른 새로운 질병을 옮길 위험이 있고, 질병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므로 일단 발생하면 통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에 근거함
- 한편, 과라나를 재배한 당사자는 불법적으로 수입된 종자에서 작물을 번식 및 상업화하는 경우 브라질 정부의 법적 조치를 받을 수도 있음
- 유죄가 선고될 경우, 경고 조치와 함께 작물 압수, 1천만 브라질헤알(약 770만 링깃)의 벌금이 부과됨
- Microcyclus ulei 곰팡이(동명 Pseudocercospora ulei)에 의해 유발되는 질병인 남미 잎마름병(SALB)을 고무나무로 옮길 수 있는 식물을 고위험 국가들로부터 수입하는 것은 연구 목적을 제외하고는 금지됨
- SALB의 포자는 고무나무의 성장을 방해하고 고무 작물을 감염시킬 수 있으며 생산량에 지장을 줄 수 있는데, 특히 브라질과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수리남, 파나마 등 국가의 고무산업에 심각한 해를 끼쳐 왔음
- 참고로 말레이시아의 고무 산업 가치는 연간 180억 링깃 초과

* 출처: The Edge

<https://www.theedgemarkets.com/article/commercial-cultivation-guarana-not-allowed-malaysia-says-mafi>

□ 시사점

- 말레이시아 농무부는 2020년 1월 8일자 서한을 통해 브라질 농업축산식품부로 브라질은 가공 및 식용 목적으로만 과라나 열매를 수출할 수 있다고 통보 받은 바 있음. 금지령은 브라질 법률 no.13,123/15, 2015년 5월 20일(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접근 및 이점 공유)에 명시되어 있음

6. 말레이시아 빠르면 6월 팜유 수출세 절반으로 인하 예정



- 말레이시아 상품부는 전 세계 식용유 부족을 채우고 세계 2위 팜유 생산업체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팜유에 대한 수출세를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안함
- 플랜테이션 산업 상품부는 재무부에 말레이시아 최대 규모의 국영 팜유 생산업체인 FGV Holdings(FGVH.KL)와 해외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에 대한 세금 감면을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제안했으며 세부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힘
- 플랜테이션 산업 상품부 주라이다 카마루 장관은 말레이시아가 임시 조치로 팜유 수출 세금을 현재 8%에서 4~6%로 줄일 수 있다고 밝힘
- 이르면 6월 결정이 내려질 예정임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해바라기유 출하가 차질을 빚고,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금지 조치로 글로벌 공급이 더욱 타이트해진 이후로, 말레이시아는 식용유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집중하고 있음
- 또한 말레이시아는 B30 바이오디젤 의무 이행을 늦출 계획임
- B30 바이오디젤 의무 이행 규정은 국가 바이오디젤의 일부를 야자유의 30%와 혼합하여 세계 및 국내 식품 산업에 대한 공급을 우선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케이크에서 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사용되는 글로벌 팜유 시장은 전 세계 식물성 기름 출하량의 거의 60%를 차지하며 최고의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의 수출 금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주라이다 장관에 따르면 바이어 국가인 인도, 이란, 방글라데시의 경우는 쌀, 밀, 과일, 감자와 같은 농산물을 말레이시아 팜유와 교환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한편, 말레이시아의 팜유 생산은 이주 노동자의 입국을 중단시킨 Covid-19 국경 봉쇄에 따른 심각한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2년 넘게 압박을 받아 왔으며, 5월 여행 제한이 완화되면서 외국인 노동력이 5월 중순부터 다시 유입되고 있음

* 출처: 로이터

<https://www.reuters.com/business/energy/exclusive-malaysia-may-cut-palm-oil-export-tax-amid-global-supply-crisis-2022-05-10/>

□ 시사점

- 말레이시아 상품부는 전 세계 식용유 부족을 채우고 현재 세계 2위인 팜유 생산 국가로서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팜유에 대한 수출세를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안. 말레이시아가 팜유 수출세를 현재의 8%에서 4~6%로 임시 삭감 조치할 수 있으며, 이르면 오는 6월 결정이 있을 전망.

7. 사바 주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사료 가격 급등으로 돼지고기 수입 계획

- 동말레이시아 사바 주의 농수산부 제프리 장관은 주내 ASF 발생과 사료가격 급등, 그리고 돼지 생산량의 감소로 인해 덴마크와 프랑스로부터 돼지 수입 허가를 승인할 전망이라고 보르네오 포스트가 보도함
- 주내 한 현지 수입업체는 28,000kg의 프랑스산 삼겹살을 수입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음
- 스페인, 싱가포르, 중국, 덴마크, 프랑스에서 241,635kg 냉장 돈육 및 기타 돼지고기 제품을 수입할 수 있는 허가도 승인됨
- 참고로 말레이시아 가축 사료가격은 2021년 8월에서 2022년 5월 사이 최대 40%가 인상됨

* 출처: 보르네오 포스트

<https://www.efeedlink.com/contents/05-09-2022/7dd5de2d-919b-4f9c-97bc-00b7c03cd7c5-1502.html>

□ 시사점

- 식량 부족 문제 해결하고 닭고기와 돼지고기 등의 공급량 확보를 위해 사바 농수산부는 더 많은 해외 도축장에 대해 수입 허가를 제공할 전망임

1. 통관동향 등 이슈

- 말레이시아 농업부 발행 승인허가(AP: Approved Permit) 요건 폐지

2. 변동사항

- 말레이시아는 18일 식품 수입에 대한 AP 요건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러한 결정은 즉시 발효됨
- 5월 18일 내각회의에서 있었던 식량 안보 문제 논의에서 농업식품산업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하라는 명령을 받음
- 전쟁의 영향을 고려하여 잠재적인 식량 위기를 대비하기 위한 장단기 계획 준비의 일환임
- 말레이시아 총리는 “이전에는 소와 쇠고기를 수입하는데 AP가 필요했지만 오늘부터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충분한 공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식품을 수입할 수 있다”고 18일 언급함
- 앞서 국내 대형 슈퍼마켓 체인 및 소비자 단체들은 푸트라자야 연방 정부에 야채와 고기부터 해산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식품의 수입에 대한 AP에 대한 검토를 촉구한 바 있음
- AP가 폐지됨에 따라 모든 회사들은 MAQIS(말레이시아 검역 검사부)에서 발행한 IP에 따라 모든 종류의 농산물을 수입할 수 있음
- 이는 MAQIS 법 2011(Act 728)의 하위 11(1) 조항과 시행 중인 기타 관련 법 규정에 부합함

3. 기타 주의사항 등

- 농산물을 수입할 때 더 이상 AP는 필요가 없겠지만, 말레이시아 국경을 통과할 때 생물보안 통제를 위하여 수입업자들은 여전히 IP를 소지해야 함
- 쌀 수입을 위해서는 여전히 AP가 필요함



KEMENTERIAN PERTANIAN DAN INDUSTRI MAKANAN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od Industries

Wisma Tani

No 28, Persiaran Perdana, Presint 4

Pusat Pentadbiran Kerajaan Persekutuan

62624 PUTRAJAYA,

MALAYSIA

No. Telefon : 03-8000 8000

No. Faks : 03-8888 6020

Laman Web : www.mafi.gov.my

KENYATAAN MEDIA

PEMANSUHAN *APPROVED PERMIT* (AP) BAGI KOMODITI AGROMAKANAN

1. Selaras dengan pengumuman YAB Perdana Menteri pada 18 Mei 2022, Kementerian Pertanian dan Industri Makanan (MAFI) ingin memaklumkan bahawa *Approved Permit* (AP) yang merujuk kepada kelulusan kuota import dan kebenaran mengimport bagi komoditi agromakanan tertentu iaitu **kubis bulat, kelapa tua biji, ayam (keratan ayam dan ayam bulat) dan susu cair**, tidak lagi dikenakan dan berkuatkuasa serta merta. Walau bagaimanapun, AP untuk pengimportan beras masih lagi berkuatkuasa. Keputusan pemansuhan AP ini adalah sebagaimana diputuskan oleh Jemaah Menteri.
2. Walaupun AP tidak lagi diperlukan untuk membawa masuk komoditi agromakanan daripada luar negara, pengimport masih perlu mempunyai *Import Permit* (IP) bagi tujuan kawalan biosekuriti di pintu-pintu masuk negara. Ini untuk memastikan kawalan biosekuriti dan produk yang diimport adalah bebas daripada penyakit dan perosak serta diperoleh daripada loji yang diiktiraf oleh Kerajaan.
3. Dengan pemansuhan AP ini, semua syarikat adalah dibenarkan mengimport semua komoditi agromakanan tertakluk kepada *Import Permit* (IP) yang dikeluarkan oleh Jabatan Perkhidmatan Kuarantin dan Pemeriksaan Malaysia (MAQIS) beserta syarat-syarat yang tertulis dalam permit selaras dengan subseksyen 11(1) Akta Perkhidmatan Kuarantin dan Pemeriksaan Malaysia 2011 [Akta 728] dan juga Akta serta Peraturan lain yang berkuatkuasa.
4. MAFI akan terus memainkan peranan penting bagi memastikan kelangsungan sektor agromakanan di setiap peringkat rantai makanan dan supaya rakyat terus mendapat bekalan makanan yang mencukupi, selamat dimakan serta berkhasiat. Pada masa yang sama, kebajikan pengeluar makanan tempatan juga akan terus dipelihara.
5. MAFI berharap dengan keputusan Kerajaan ini, bekalan makanan dan sekuriti makanan negara akan terus kekal terjamin bagi kesejahteraan Keluarga Malaysia.

KEMENTERIAN PERTANIAN DAN INDUSTRI MAKANAN

19 MEI 2022

- 4가지 유형의 농식품 상품만이 더 이상 AP 및 수입허가(IP: Import Permit)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게 됨
- 해당 4가지 농식품은 양배추(round cabbage), 코코넛 씨앗(old coconut seeds), 닭고기(chicken cuttings and round chicken), 우유(milk)
- 농업산업부 제공 AP 및 IP 관련 추가 정보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 가능함:
<https://www.mafi.gov.my/pemansuhan-ap-approved-permit->

1. 통관거부사례

- MAQIS(Malaysian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s), 중국산 생선으로 라벨된 런천미트 압수



- 생선 라벨을 붙여 말레이시아로 수입되던 돼지고기가 말레이시아 검역소 (MAQIS)에서 적발·압수됨
- MAQIS의 아즈하리 샤리단 아부 바카르 부국장은 北버터워스 컨테이너 터미널 (NBCT)에서 생선캔으로 위장한 런천미트 864상자(2만 736통)가 담긴 컨테이너를 반입하려던 시도가 저지되었다고 밝힘
- 부국장은 올해 2월 MAQIS 집행관이 중국산 생선 통조림 제품 7,050.24kg (시가 32만6,592링깃)을 적발했다고 밝히며, “거짓 정보 또는 부정확한 정보, 혼란스러운 정보 하에 수입되는 품목은 ‘말레이시아 검역 및 검사 서비스법(Act 728) 13조에 의거하여 위법하다”고 설명함
- 이번 압수 규모는 올 들어 돼지고기 관련한 검역위반 사례 중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짐

- 문제의 제품은 말레이시아 화학부에서 샘플링과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생선으로 표시된 제품의 내용물이 실제로는 돼지고기임이 확인됨
- 말레이시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중국발 돼지고기류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
- 문제 제품의 수입사는 추가적으로 ‘말레이시아 검역 및 검사 서비스법 2011’의 11(1) 조항에 의거 MAQIS가 승인한 유효 수입허가가 없이 농산물을 수입한 혐의로도 기소
- 회사에는 상기 혐의에 대해 각 1만6,000링깃의 벌금이 부과되었으며, 압수된 물품은 2주 내에 폐기 조치됨

* 출처 : 2022년 5월 12일 / The Star

<https://www.thestar.com.my/news/nation/2022/05/12/maqis-seize-pork-meat-labelled-as-fish-from-china>

2. 시사점

- 말레이시아에서는 최근에도 지방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사례가 감지된 바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함. ASF의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으로부터의 돼지고기류 유입을 금지하고 있음. 돼지고기 가격 인상으로 무허가 사육 및 도축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에게는 시장가 보다 저렴한 돈육의 구매 자제를 촉구함